올 봄 입방풍을 수확하고 있는 남면 금오도 주민들.

여수 금오도 '잎방풍'을 아시나요?

市, 가공상품 개발… 고소득 산업육성 탄력

10억7500만원 투입… 11월 시제품 생산 예정

여수시가 향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남면 금오도 잎방풍이 가공 상품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인 '잎방풍 산업육성 프로젝트'에 10억7500만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추진한다.

시는 잎방풍 상품화를 위해 금오도 방풍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5억8600만 원을 들여 잎방풍 집하장(저온저장고) 및 가공공장을 지난달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잎방풍 집하와 선별, 출하 등 공동집하시설 및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 가공상품 생산시설을 구축해 냉동방풍, 건나물 효소 등의 가공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썹(HACCP)인증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남면 금오도 일대 95ha에 조성된 445호 농가에서는 올해 500kg 잎방풍을 생산, 34억6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잎방풍은 3월 중순 이전에 출하할 경우 4kg당 1만5000원 내외의 고소득이 가능하나 이후의 홍수 출하기에는 1000~5000원으로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섬 지역 특성상 여름철 과잉생산에 따른 상품성 하락과 유통기한이 단축되는 약점도 안고 있다.

때문에 연중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품 개발이 급선무로 떠오르면서 이번 가공공장 건립으로 잎방풍 산업육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가공식품 개발과 연중생산기술 도입으로 매년 4차례에 그치던 생산량이 6회로 확대, 약 1.5배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또 예냉시스템 도입으로 여름철 출하상품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유통기한도 2.5배가 연장된다.

시는 앞으로 시장조사와 상품기획, CI 개발 등 컨설팅 추진과 잎방풍 홍보 인프라 구축, 잎방풍 클러스트 운영을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시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잎방풍은 본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로 줄기가 1m가량 되며 뿌리는 10~20cm의 방추형으로 병풀나물, 갯방풍, 갯기름나물로도 불리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산림욕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긴다

신안 자은도 자연휴양림 개장… 예약 폭주

금빛 모래사장과 잘 어우러진 신안 자은도 휴양지가 임시 개장하면서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25일 신안군은 "자은도 백산리 양산해수욕장 일대에 33.2ha의 규모의 신안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애초 오는 9월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여름 피서객들을 위해 25일 임시 개장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10동과 세미나실로 구성된 산림문화 휴양관, 5km 해변산책로,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등이다.

자연휴양림은 자은도의 다도해 해상 다이아몬드 제도 중심권에 자리해 산과 해안, 바다가 어우러진 섬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주변에 백길, 분계 등 9개 해수욕장이 산재해 있고, 용이 승천했다는 천연담수호인 용소, 두봉산 등산로, 구영리 옹관고분, 고장 고인돌등의 문화유적이 잘 보존돼 휴양 체험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신안자연휴양림에는 길이 2km, 폭 300m의 양산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산림욕과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휴양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인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휴양객들이 편안히 쉬어갈수 있도록 시설 정비 등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족, 그룹단위의 최고 산림휴양 명소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곡성농기원, 토착미생물 확대배양기 전국 최초 설치 지난 24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 기관과 친환경농업단지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미생물 배양실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에서는 토착미생물 배양기(ELS-500)가 전국 최초로 설치돼 자연순환생명농업의 필수요소인 토착미생물을 확대 배양할 수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 새얼굴

"郡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 노력"

설 인 철 함평부군수

설인철(58·사진) 제24대 함평부군수가 최근 취임했다.

설 부군수는 취임사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 "함평군의 미래가 걸려있는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돼 함평이 전남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다"며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설 부군수는 1975년 공직에 입문해 고흥군 환경관리과장, 전남도 자치행정국 비상대책담당, 행정혁신국 세정담당과 행정담당, 일자리창출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곡성석곡농협-원광대한의대, 농촌의료봉사

곡성석곡농협과 원광대 한의대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석곡농협 대강당 등 3개소에서 석곡·죽곡·목사동지역 고령 및 저소득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진료에는 원광대 한의대 박성주 교수 등 최고의 의료진 30여명이 초빙됐다. 진료과목은 척추, 관절, 무릎, 한방내과, 한방외과, 한방신경외과 등으로 침, 뜸, 약제치료 등의 처방을 해주고 있다.

석곡농협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에 고령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3000여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진도 고군면 동녘마루권역 본격 개발

진도군 고군면 일원이 동녘마루권역으로 본격 개발된다.

진도군은 25일 "지난 23일 오후 고군면 하율리에서 '동녘마루권역 종합정비사업'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정주기반 확충과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고군면 지막·벌포·원포·하율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 권역에 오는 2015년까지 국비 34억5100만원 등 모두 49억3000만원을 투입해 참살이 어울촌 및 도·농교류관, 농산물(배추) 가공시설 신축, 진입로 확·포장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도농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양시 시민의 상' 접수 내달 22일까지… 7개 부문

광양시가 다음달 22일까지 '2013년 광양시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시상부문은 교육·과학부문, 체육진흥부문,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홍보부문, 공공복리부문, 산업경제부문 등 총 7개 부문이다.

추천서 및 공적조서 양식은 각 읍면동에서 교부받거나 광양시홈페지(http://www.gwangy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홍보담당관실(061-797-2714)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